

제임스 코너의 랜스케이프 어바니즘에 대한 비판적 재구조화

- 에세이 Landscape Urbanism 속 키워드의 위치와 연결 -

조담빈*, 배정환**

*서울대학교 대학원 생태조경·지역시스템공학부 석사과정, **서울대학교 조경·지역시스템공학부 교수

1. 서론

본 연구는 제임스 코너(James Corner)의 랜스케이프 어바니즘(Landscape Urbanism) 논의가 단순하고 평면적으로 독해되어왔음을 지적하며, 그의 대표 에세이 “랜스케이프 어바니즘”(Corner, 2003)¹⁾을 비판적으로 읽고 재구조화한다. 그가 이 글에서 제시한 다섯 가지 주요 개념은 이후 관련 논의의 기반이 되며 랜스케이프 어바니즘 담론 형성에 주요하게 기여했다. 하지만 이 개념들은 독립적이고 개별적인 것으로 여겨졌으며 개념들 사이, 또는 랜스케이프와와의 관계성을 탐구해 담론을 구조화하려는 시도는 제한적이었다. 이런 배경에서 본 연구는 그의 글에서 각 개념과 랜스케이프가 이루는 관계와 구조를 발굴해냄으로써 아직 밝혀지지 않은 랜스케이프 어바니즘의 가능성을 조명한다. 이는 랜스케이프 어바니즘에 대한 기존 논의에 기여할 뿐만 아니라 추후 이어질 해석과 탐구의 터를 다지는 작업이다. 본 연구는 해당 담론에 대한 기존의 해석이나 비판을 새로운 시선으로 바라보며, 코너의 저술뿐 아니라 랜스케이프 전반에 대한 새로운 탐구와 논의의 가능성을 제시한다.

2. “랜스케이프 어바니즘” 원문 재독해의 필요성과 방법

조경학계와 전문 분야로서의 조경 모두에서 큰 주목을 받은 랜스케이프 어바니즘과 관련된 저술은 다양하지만 담론의 토대를 마련하고 모양 잡은 권위 있는 대표 저술로는 찰스 월드하임(Charles Waldheim)과 제임스 코너의 글이 꼽힌다. 월드하임(Waldheim, 2002; 2006a; 2006b; 2010; 2016)은 초기 담론을 이끌어낸 것으로 평가되지만, 동시에 그의 이론은 하나의 완결적인 주장을 제시하기보다는 기존 담론에 대한 비판과 거부를 통해 논의를 전개한다는 비판을 받는다. 이는 랜스케이프 어바니즘 담론 자체가 지속적으로 마주하는 비판이기도 한데, “이 움직임은 무엇을 제안했는지보다 무엇을 거절했는지를 공유한다”(Vicenzotti, 2017: 76)는 것이다.

이런 맥락에서 코너의 저작은 랜스케이프 어바니즘을 자기완결적으로 정의하고 이를 특징짓는 개념과 테마를 제시했다는 데에서 가치를 지닌다. 에세이 “랜스케이프 어바니즘”(Corner, 2003)에서 그는 다섯 가지 키워드—수평성(horizontality), 인프라스트럭처(infrastructures), 과정의 형태(forms of process), 기술(techniques), 생태(ecology)—로 랜스케이프 어바니즘의 주요한 특징을 정리해 제안하며 실천의 이론화를 시도했다. 이 다섯 가지 개념은 비판, 해석, 적용, 평가 등 관점을 불문하고 관련 논의에서 적극적으로 호출되었다. 이 개념들은 자기완결적일 뿐만 아니라 비교적 명확하고 정리된 도구가 된다는 점에서 그의 글은 이후 랜스케이프 어바니즘에 대한 논의가 전개되고 이동하고 이해되는 기반이자 주요 프레임워크로 기능했다. 코너의 글은 추후 논의를 통해 계속해서 강화되고 재생산되었기에 단순히 에세이 몇 편에 불과하다고 볼 수 없다. 그것은 랜스케이프 어바니즘의 원형이며, 게다가 큰 변형을 거치지 않은 원형이다.

그럼에도 그의 저술에 대한 기존 이해는 얇고 피상적이다. 글을 통합적으로 독해하려는 노력이 드물었으며, 대신 개별 단어와 표현이 쓰인 그대로 읽히며 다섯 가지 개념 또한 개별적이고 분리된 것으로 이해되었다. 그렇기에 이후 논의는 각 개념을 주로 랜스케이프 어바니즘의 실천을 평가하기 위한 고정적인 평가 기준으로 삼았으며, 이론에 대한 평가에 있어서도 키워드를 제거하거나 무고 표현을 수정하는 등 일차원적인 수정을 제안했다. 관심의 중심에는 개별 개념이 놓였으며, 이들 사이 관계성이나 코너의 이론이 가지는 전반적인 구성과 구조는 간과되었다. 그 결과, 랜스케이프 어바니즘은 단순히 이 다섯 가지 키워드의 총합으로 여겨졌다. “(랜스케이프 어바니즘의) 논쟁자들이 매우 과장되고 거창한 면이 있다”(Weller, 2008: 256)거나 랜스케이프 어바니즘을 “새롭고 다른 수사”(Kelbaugh, 2013: 67)라고 표현하는 등, 이론이 모호하고 수사적이라는 비판은 일면 이런 표면적 이해에서 기인한다. 연관성이 없는 다섯 가지 이질적 키워드의 합은 모호할 수밖에 없으며, 전체적 구조가 부재하는 대형 테마들의 제시는 수사적으로 보일 것이다.

이런 비판은 분명 일부 유효하다. 하지만 모호하고 불분명하다는 것은 다른 말로 하자면 무한하게 적용/변형 가능하다는 것이다. 이 양날의 검은 랜스케이프 어바니즘의 본질적 성격이다. 따라서 그것이 강점인지 약점인지에 대한 끝없는 논의에 참가하기보다는 이 모호함과 무한함 자체를 들여다보는 것이 생산적이고 발전적인 방향이다. 더 중요한 문제는 랜스케이프 어바니즘의 개념들이 얼마나 복잡한지가 아니라 어떻게—어떤 구조로 연결되고, 어떤 관계를 맺고, 어떤 맥락에 놓이며—복잡한지이다. 이런 관점에서 랜스케이프 어바니즘을 재해석하는 것은 모호하고 불분명하다는 비판 자체를 거부하거나 부인하는 방식이 아니라 키워드 사이의 관계성을 탐구하고 전체적인 구조를 그려냄으로써 모호성과 불분명으로 이해되는 특성을 유연함과 변형 가능성

1) James Corner, 2003. Landscape Urbanism. In Landscape Urbanism: A Manual for the Machinic Landscape, eds. Mohsen Mostafavi and Ciro Najle, London, Architectural Association, pp.58-63.

2) ‘Landscape’는 한국어로 ‘경관’으로 번역되지만 랜스케이프 어바니즘에서의 랜스케이프는 경관뿐만 아니라 경관의 물성, 수평성, 수행 등 다층적 특성을 포괄하는 개념이므로 본 연구에서는 경관 대신 ‘랜스케이프’를 사용한다.

으로 재해석한다.

기존 논의가 랜드스케이프 어바니즘을 동일하고 수평적인 다섯 가지 개념의 합으로 이해하면서 담론의 유동성은 외면되었다. 이 유동성에 집중하는 것, 그리고 이론의 모호함이 어떤 맥락에서 어떤 모습을 보이는지 탐구하는 것이 각 개념을 정독(正讀)하는 데 필수적인 작업이다. 이는 또한 랜드스케이프 어바니즘의 전체적 구조를 이해하기 위한 독해다. 랜드스케이프 어바니즘은 수평적 접근, 과정에 대한 주목, 생태에 대한 존중의 총체가 아니다. 랜드스케이프 어바니즘은 이 특질들이 랜드스케이프를 통해 어떻게 얽히고 엮이고 교차하는지, 그리하여 도시의 이질성들을 융합하는 랜드스케이프를 이야기한다. 그러므로 각 개념의 관계성과 위치를 통해 코너의 글을 재독해하고자 하는 이 시도는 이 개념들을 랜드스케이프 어바니즘으로 다시 제대로 묶어내어 구조화하기 위한 시도이다.

3. “랜드스케이프 어바니즘”의 비판적 재독해

3.1 각 키워드의 연결 파악하기

코너의 에세이 “랜드스케이프 어바니즘”(Corner, 2003)에서 다섯 테마는 각각 숫자가 달린 절의 형식으로 제시된다. 글의 구조만 본다면 각 테마가 독립적이고 서로 분리된 것처럼 구성되어 있지만, 이런 구조에도 불구하고 그 내용에서 각 개념 사이 관련성을 명확히 찾을 수 있다. 가령, 첫 테마인 ‘수평성’에 대한 서술에서 다른 키워드인 ‘인프라스트럭처’나 ‘과정’과 연관되는 내용이 다수 언급된다. 수평적 표면은 “그 위에서 작용하는 모든 힘을 모으고 분배하고 응축하는 조직적 기반”(p. 59)으로 설명되는데, 즉 판 위에서 생성되는 수행과 효과가 주목된다. 또한 도시의 판에서 “수평적인 조직들이 인프라스트럭처로 기능”(p. 59)할 수 있도록 “미래 프로그램을 지지하기 위한 ... 서비스와 경로를 수립”(p. 59)할 필요성이 강조된다. 비록 첫 절의 제목은 ‘수평성’이지만 수평성에 대한 서술은 인프라스트럭처와 과정과 밀접하게 엮여서 제시되는 것이다. 수평적 판과 장은 인프라스트럭처로 기능하도록 조직되어야 하며 그 위의 프로그램이 수행하고 움직이는 과정이 중요하게 검토되어야 한다.

이런 연결성은 두 번째 구분인 ‘인프라스트럭처’에서도 반복적으로 나타난다. “랜드스케이프 어바니즘은 인프라스트럭처적 기복을 통해 주어진 장에 새로운 가능성을 심는다”(p. 60)고 언급하는 부분에서 도시의 수평성이 전제된다. 인프라스트럭처로 기능하고 인프라스트럭처의 설치와 작동의 기반이 되는 것은 바로 수평성인 것이다. 또한, 수평적 판에 인프라스트럭처 기능을 심는 과정에서 “기하, 소재와 규범은 구성을 결정하기보다는 ... 미래의 가능성을 해방하기 위해”(p. 60) 사용되며 “양식적이고 기호학적인 표현의 방식으로서 공간적 형태와 기하에 집중하기 보다는 이들이 생산하는 효과에 관심을 둔다”(p. 60). 인프라스트럭처가 설치되고 작동되는 방식을 설명함에 있어서 세 번째 키워드인 ‘과정의 형태’는 이미 반복적으로 언급된다.

다섯 개의 테마가 글에서 수평적으로 동등하게 서술되고 연결되지만, 각 부분의 내용과 서로의 연관성을 검토해보면 이들이 위치, 지위나 역할에 있어 동질적이라고 이해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오히려 각 테마는 랜드스케이프와, 그리고 서로와 특정한 관계를 맺는다. 앞에서 언급된 세 개념은 서로 긴밀히 연결되는 반면, 뒤따르는 두 개념은 이들과는 조금 다른 위치에 놓인다. 전자는 도시와 랜드스케이프를 설명하기 위한 개념, 구체적으로 랜드스케이프 어바니즘이 도시와 랜드스케이프를 어떻게 바라보고 여기는지와 관련되는 반면, 후자는 담론 자체-이에 필요한 방법론과 기본 정신-를 설명하는 개념이다. ‘기술’은 표현에서도 드러나듯 “수사와 설득”(p. 61), “맵핑”(p. 62), “다이어그램화”(p. 62) 등 담론을 실천함에 있어서 필요한 도구와 기술을 강조한다. ‘생태’는 반면, “모든 주장의 기초”(p. 63)이다. 이는 랜드스케이프와 도시와 모든 다른 것들이 존재하는 세상을 “상호의존성의 역동적이고 서로 밀접하게 관계된 과정”(p. 63)이자 “계속되고 임시적인 상태”(p. 63)로 바라보는 정신(ethos)이다.

3.2 랜드스케이프 어바니즘에서 키워드 위치시키기

다섯 가지 테마에 대한 기존 이해가 랜드스케이프 어바니즘에 대한 코너의 구상을 온전히 담고 있지 못하다는 점은 분명하다. 각 키워드를 연결해 랜드스케이프 어바니즘을 다시 그려보자. 이는 다섯 키워드의 단순한 나열이나 합이 아닐 것이다. 랜드스케이프 어바니즘에서 수평성, 인프라스트럭처, 과정의 형태는 각각 도시의 바탕이자 기반, 그 기능과 작동, 그리고 그 작동의 운영 원리를 통해 랜드스케이프와 도시를 그려낸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랜드스케이프 어바니즘에서 [1] 평평한 물질이자 수평적 연결망인 랜드스케이프는 [2] 인프라스트럭처적 기복의 기반, 또는 인프라스트럭처 자체로 기능하며, [3] 이는 그 형태에 과정이 주요한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염두에 두고 계획되고 실행된다. 이런 실천에 있어 [4] 다양한 기술이 요구되며, 이 모든 구상과 실천은 [5] 세계가 서로 연결되어 있고 역동적이며 상호의존적이라는 기반 위에 놓인다.

랜드스케이프 어바니즘을 ‘랜드스케이프는 수평적이고 인프라스트럭처이며 과정에 대한 형태이고 기술이며 생태이다’라고 이해하는 것은 담론을 과도하게 단순화한 결과이다. 오히려 이 담론은 “수평성이 ‘있는’ 랜드스케이프가 기술을 ‘통해’ 생태적인 ‘세계에서’ 과정 중심의 형태를 ‘가지고’ 인프라스트럭처로 ‘작동한다’고 이해하는 방식”이라고 파악하는 것이 훨씬 적절하다. (Landscape ‘has’ horizontality, which ‘works as’ infrastructure, ‘in forms of process, ‘by’ technique, ‘in the world of ecology.’) 랜드스케이프 어바니즘은 랜드스케이프를 그 중심에 두고 도시의 기반(수평성), 그 기반의 운영(인프라스트럭처), 그 운영의 원리(과정), 이를 실천하기 위한 도구(기술), 그리고 이를 포괄하는 정신이자 세계관(생태)을 통해 도시를 읽으려는 종합적 시도인 것이다. 이런 이해방식에서 알 수 있는 것은 코너가 제시한 테마들이 랜드스케이프 어바니즘의 단순한 조각이 아니라 복잡하고 구조적인 프레임워크에서 선별된 주요 개념이라는 것이다. 그러므로 기존 이해의 한계를 극복하고 이 프레임워크의 내부 구조와 관계성을 탐구하는 작업이 이 이론을 제대로 이해하는 데 필수적이다.

4. 결론

본 연구는 기존 논의가 코너의 랜드스케이프 어바니즘을 표면적으로만 이해하며 담론의 골자를 놓쳤음을 지적하며 그의 에세이 “랜드스케이프 어바니즘”(Corner, 2003)을 비판적으로 재독해했다. 코너의 저작은 랜드스케이프 어바니즘 담론이 발전하고 확산하는 데 결정적으로 기여하며 담론의 기반이 되었지만, 평면적으로 이해되었으며 건설적이지 못한 비판을 받았다. 본 연구는 코너의 저작에 나타나는 랜드스케이프와 관련 개념들의 구조와 관계성을 총체적으로 분석함으로써 이론이 가진 잠재력을 다시 발굴하고 모호하고 수사적이라는 비판을 일부 해소하고자 했다. 본 연구는 랜드스케이프 어바니즘의 랜드스케이프가 맥락적이라는 전제를 새롭게 관찰하고 해석한다. 모호함, 수사적임, 유연함, 무한함—그 무엇으로 부르고 여기든 담론이 발전하지 못하고 정체된 것은 옹호자와 비판자 모두가 이를 기계적으로 이해했기 때문이다. 랜드스케이프가 어떤 맥락에서 어떤 모습을 보이는지, 그 관계적이고 맥락적인 모습을 포착해 명료화한다면 랜드스케이프 어바니즘이 발휘하지 못한 잠재력을 드러낼 수 있을 것이다.

참고문헌

1. 김영민(2015) 랜드스케이프 어바니즘의 비판적 견해에 대한 고찰: 담론의 내재적 체계를 중심으로. 한국조경학회지 43(2): 87-104.
2. 배정환(2004) Landscape Urbanism의 이론적 지형과 설계 전략. 한국조경학회지 32(1): 69-79.
3. Corner, J.(2003) Landscape urbanism. In M. Mostafavi and C. Najle, eds., Landscape Urbanism: A Manual for the Machinic Landscape. London: Architectural Association. pp. 58-63.
4. Corner, J.(2006) Terra fluxus. In C. Waldheim, ed., The Landscape Urbanism Reader. New York: Princeton Architectural Press. pp. 21-33.
5. Kelbaugh, D.(2013) Landscape urbanism, new urbanism and the environmental paradox of cities. In A. Duany and E. Talen, eds., Landscape Urbanism and its Discontents: Dissimulating the Sustainable City. BC: New Society. pp. 57-86.
6. Vicenzotti, V.(2017) The landscape of landscape urbanism. Landscape Journal 36(1): 75-86.
7. Waldheim, C.(2002) Landscape urbanism: A genealogy. Praxis 4: 10-17.
8. Waldheim, C.(2006a) Introduction: a reference manifesto. In C. Waldheim, ed., The Landscape Urbanism Reader. New York: Princeton Architectural Press. pp. 13-19.
9. Waldheim, C.(2006b) Landscape as urbanism. In C. Waldheim, ed., The Landscape Urbanism Reader. New York: Princeton Architectural Press. pp. 35-53.
10. Waldheim, C.(2010) On landscape, ecology and other modifiers to urbanism. Topos 71: 21-24.
11. Waldheim, C.(2016) Landscape as Urbanism: A General Theory. NJ: Princeton University Press.
12. Weller, R.(2008) Landscape (sub)urbanism in theory and practice. Landscape Journal 27(2): 247-267.